

주일가정예배

2021년 10월 17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9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9-11)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그 깊고 넓은 사랑의 품으로 품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42장 다같이

1.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후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2.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3.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12:1-10 인도자

- 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 5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설 교 『셋째 하늘의 꿈』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490장 다같이

1.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2.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 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3.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을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셋째 하늘의 꿈

고린도후서 12:1-10

이찬규 목사(독일 한마음교회)

당신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를 은사는 무엇인가? 살다 보면 그 비전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인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신의 복음에 영적인 것이 있느냐? 신령한 것이 있느냐? 당신은 방언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천사의 말(방언)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이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오해했다. 실상 바울은 골방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대적자들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스레 떠벌린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영적 체험도 없는 주제라고 경멸했다. 하지만 그의 사도권에 심대한 도전이 가해졌을 때 바울은 비로소 그 무거운 입을 떼 자신이 체험한 영적 환상과 계시를 말해준다. 공개적으로 자랑한 적은 없으나 상황의 압박으로 어리석게도 자랑하겠다고 한 것이다. ▶바울은 자기 체험을 제삼자의 체험인 양 거리두기를 하면서 묘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이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다. 실로 엄청난 천상의 비밀을 보고 들은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비전과 은사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한다. 지난 시대를 생각해 봐도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골방에서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해 전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꿈과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꿈을 가슴에만 품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 꿈을 지키시고 성취해 주셨다. 바울은 은사주의나 승리주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발설하지는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고통스럽게 하셨다. 바울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장애가 될까 봐, 어린 양들을 실족하게 만들까 봐, 이 병이 낫기를 간절하게 세 번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셨다. “어쩔 수 없어. 아프고 힘들어도 그냥 살아”라는 뜻은 아니었다. “걱정하지 마라. 바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니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신다. “괜찮아. 바울아. 내가 본 셋째 하늘의 꿈, 너에게 준 나의 꿈은 너의 약함으로 인해 조금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야. 도리어 그 약함이 그 꿈을 빨리 이루게 할 거야” 하시는 것이다. 그때 바울은 그가 은사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자신의 자랑으로 삼을 때, 그 셋째 하늘의 비전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각자에게도 셋째 하늘의 꿈이 있다. 꿈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것이 자랑으로 여겨서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꿈은 삶으로 품어야 한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 그랬더니 그 꿈은 자신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었고, 지혜가 되었고, 구원이 되었다. 바울은 그가 보았다는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 일언반구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에 나침판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역기가 되었다. 어떤 큰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보호막이 되었다. 그렇게 그는 주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진정 외유내강의 사람들이다. 꿈은 강하고 현실의 자랑은 약하지만,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늘의 사람이다. 주께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기원한다.